2026년 7월 31일

Hana FX Daily Letter

BOJ 회의 대기 속 엔화 움직임 주시

하나은행

외환파생상품영업부
이유정 연구원

달러/원 전망 및 동향

• 금일 전망 : 글로벌 약달러와 수급상 매도 우위에 하방 압력

daily range 예상: 1,415~1,430원

▪ 미국 성장률과 PCE 물가의 둔화세가 확인된 가운데, 미-일 외환당국이 엔저 방어 의지를 내비치면서 엔화 가치가 급등했음. 이에 따라 글로벌 달러가 크게 약세를 보이면서, 원화는 강세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 수급 측면에서도 수출 업체의 달러 매도세가 강하게 유입되고 있어, 금일 달러/원 환율은 추가 하락을 시도할 전망. 다만, 금일 예정된 BOJ 통화정책회의의 매파적 스탠스 수위에 따라 엔화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으며, 원화도 이에 영향 받을 수 있는 점에 유의할 필요

▪ **전일 동향 : 30일 달러/원 환율은 전일대비 28.5원 급락한 1,418.0원에 마감**
장 초반, 워시 연준 의장의 완화적 발언에 따른 달러 약세로 1,430원대 중반까지 하락. 이후 저가 매수세에 반등했으나, 반도체 기업 등 수출업체의 대규모 달러 매도 물량에 재차 하락, 1,437.4원에 주간 거래를 마침. 이어진 야간장에서는 일본 당국의 개입 추정 움직임 속 엔화 강세 나타난 영향으로 1,420원선 하회해 마감

국제 통화시장 이야기

▪ **(달러인덱스)** 워시 연준 의장의 도비시한 발언 여파와 미-일 당국의 엔화 약세 방어 의지에 따른 엔화 가치 급등이 맞물리며 달러는 약세 압력 속 99대로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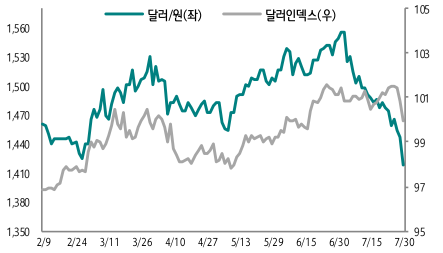
▪ **(유로-달러)** 예상보다 부진했던 미국 성장률과 엔화 강세 영향으로 달러가 약세를 보인 가운데, 에너지 가격 오름세도 주춤해지자 유로화는 강세로 전환

▪ **(달러-엔)** 일본 외환당국이 대규모 엔화 매수에 나선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뉴욕 연은의 레이트체크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엔화는 가파른 강세를 보임

하나에서 전해주는 FX N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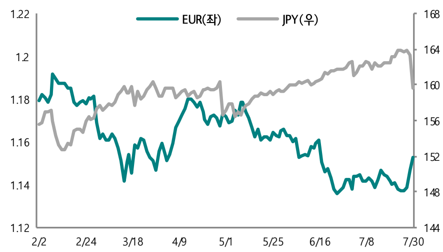
▪ 이번 FOMC는 시장에 짙은 불확실성을 남겼음. 특히, 워시 연준 의장이 6월 회의 이후 시장 금리가 상승한 점을 강조한 대목에 주목할 필요. 워시 의장은 정책금리를 조정하지 않았음에도, 명목금리와 실질금리가 모두 상승하며 금융여건이 실질적으로 긴축되고 있다고 평가함.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인 금리인하 압박과 목표치를 상회하는 인플레이션이라는 상충된 상황을 동시에 고려한 발언으로 해석됨. 물론 워시의 설명대로 시장이 스스로 긴축 가능성을 선반영함으로써 인플레이션이 안정되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해 볼 수도 있음. 그러나 워시 체제의 연준은 포워드 가이던스를 중단하는 등 정책 방향에 대한 단서를 주지 않고 있어 오히려 금리 경로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 상황임. 이번 회의로 당장의 긴축 우려는 덜어냈을지라도, 향후 인플레이션 향방과 연준의 대응에 대한 시장의 불안감은 오히려 확대될 수 있음. 실제로 회의 직후 정책금리에 민감한 미 국채 2년물 금리는 하락한 반면, 기대 인플레이션과 정책 불확실성을 반영하는 장기금리는 상승하는 차별화된 모습을 보였음.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안정적인 둔화세로 돌아서기 전까지는, 연준 통화정책의 불확실성이 부각되는 시점마다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원화 환율 추이



구분	시가	고가	저가	NDF
달러/원	1,443.7	1,447.7	1,418.0	1,426.8

주요 통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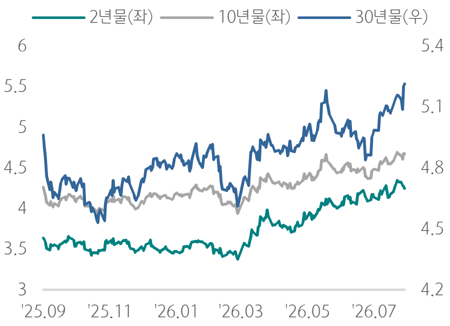


구분	EUR/USD	USD/JPY	USD/CNH
종가	1.1526	159.53	6.7476
전일대비	+0.0057	-3.85	-0.0130
재정환율	1,640.2	902.63	213.40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시간	지표	예상	이전
10:30	중국 7월 제조업 PMI	50.1	50.3
	중국 7월 비제조업 PMI	50.0	50.2
12:00	일본 BOJ 금리결정	1.00%	1.00%
15:30	일본 BOJ 기자회견		

미 국채 금리 추이



자료: Bloomberg

본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해서 작성된 것이나, 결과에 대한 정확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투자 등 금융거래는 본인의 책임 하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본 정보는 상품 가입 권유 및 유인 목적이 아닌, 고객 앞 참고를 위한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